

이 자료는 9월 6일(수) 11: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발표자료

2006. 9. 6(수)

1. 한·미 FTA 3차 협상
2. DDA 협상 최근 동향과 대응
3.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동향

농 립 부

1

한·미 FTA 3차 협상

□ 우선 한·미 FTA 제3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[한·미 FTA 제3차 협상]

□ 농림부는 9.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한·미 FTA 제3차 협상에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을 비롯한 18명의 협상단을 파견하였습니다.

○ 농림부 대표단은 농업 분과와 SPS(위생 및 검역) 분과 협상을 총괄하고, 이 외에도 원산지, 상품,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협상 분과에 참여하고 있음

* 농업분과 분과장 : 배종하 국제농업국장,
SPS분과 분과장 : 윤동진 통상협력과장

* 농업·SPS분과협상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9.6~9.8일 갖을 예정

□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인하계획 등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.

○ 한·미 양국은 지난 8.15일 농산물/상품/섬유 분야 양허안을 일괄 교환한 바 있으며,

- 3차 협상에서는 동 양허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품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.

- 농림부는 주요 품목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양허협상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
- 미국의 기존 FTA 체결 사례 및 그동안 우리와의 협상과정에서 보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,
 - 미측은 농산물 전품목에 예외없는 관세철폐 등 강력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.
- 정부는 우리 양허안 작성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,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임.
 - 아울러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,
 - 성공적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우리측 취약분야인 농업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
 - 또한 미국의 관심 품목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협상 준비에 적극 활용할 예정.
- 농림부는 이번 협상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,
 - 국회, 농업인단체, 학계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하여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.
- 농림부는 제3차 협상 직후 국회에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, 농업계와 품목별 협상계획을 협의할 예정임.

□ 다음은 DDA 협상 최근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[최근동향]

□ DDA 협상은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차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황임.

○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난 7.24. “협상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전반에 대한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.”고 선언

□ 협상 재개 움직임이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으나, 주요 협상 그룹의 각료급 회담이 9월중 개최될 예정임.

○ 이번 각료급 회담을 계기로 주요국들은 협상 재개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전망

□ 미국은 협상중단 책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여 DDA 협상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나, 11월 선거전에는 입장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.

○ 특히 현재 개정 논의중인 2007년 미농업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DDA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됨.

[대응방향]

-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나, 주요국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재개되어도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
- 그러나, DDA가 완전히 결렬될 경우 WTO 체제에 닥칠 위기우려를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주요국들이 일부 양보하면 타결될 가능성도 있음.
-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협상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별 유사입장국과 공조로 탄력적이고 능동적 대응해 나갈 계획임.

<참고>

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

구분	대상 국가	기본입장	비 고
G6	미국, EC, 호주, 브라질, 인도, 일본		농업협상주요국 그룹
G10	한국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, 대만, 이스라엘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모리셔스	-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· 관세상한 설정 반대 ·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	수입국 그룹
케언즈 그룹	캐나다,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호주, 뉴질랜드, 콜롬비아, 말레이시아, 남아공, 볼리비아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	-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	수출국 그룹
G20	아르헨티나, 브라질, 볼리비아, 중국, 칠레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인도, 멕시코, 파라과이, 필리핀, 남아공, 태국, 쿠바, 파키스탄, 베네수엘라, 이집트, 나이지리아, 인도네시아 등	- 개도국 입장 대변 ·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, 수출보조 철폐 · 개도국 우대 강화	강경 개도국그룹
G33	한국, 중국, 도미니카, 온두라스, 인도, 인도네시아, 자메이카, 케냐, 마다가스카르, 모리셔스, 몽골, 모잠비크, 나이지리아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페루, 필리핀, 세네갈, 스리랑카, 터키, 우간다, 베네수엘라 등	- 개도국 입장 반영 ·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(SSM)에 중점	특별품목 그룹
G90	ACP, LDC,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, 남아공, 이집트 등	-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	
ACP 그룹	아프리카, 카리브해, 태평양지역 77개 국가	-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	

□ 마지막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[그간 추진현황]

□ 지난 5월 미국 수출작업장 37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7개 작업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

□ 미국측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알려움에 따라, 8월24부터 9월4일까지 7개 작업장의 개선내용을 현지 확인 하였음.

○ 검역원 전문가 3명이 한국수출용 제품에 대한 코드화 관리 및 연령에 따른 절단 톱 구분 사용여부를 확인하였음

* 캐나다산 제품 혼적 문제 6개 작업장, 절단 톱 문제 1개 작업장

[미국 작업장 재 확인점검 동향]

□ 미국 수출작업장 현지 확인점검 결과,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선내용과 현지 조치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.

□ 미국 수출작업장(37개) 최종 승인여부는 이번 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의과대학·의과대학 교수와 한우협회·낙농육우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(9.7일)하여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임.